관광학연구 제45권 제3호(통권 185호) pp.55~79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45, No.3, May, 2021
DOI http://dx.doi.org/10.17086/JTS.2021.45.3.55.79

ORIGINAL ARTICLE
ISSN(Print) 1226-0533
eISSN(Online) 2713-6388

관광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A Study on the Notion of Freedom in Tourism

박 창 환[**] · 김 수 용[***] · 이 훈[****]

Park, Chang-Hwan · Kim, Soo-Yong · Lee, Hoon

요 약 :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관광자유개념을 시대변화에 맞는 개념으로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관광에서의 자유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대립한 시대에 이사야 벌린이 주장한 소극적 자유과 적극적 자유를 바탕으로 해방감과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이는 관광자유개념을 개인적이고 주체적 차원의 '선택의 자유'로 축소하여 오히려 타인과의 공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자의 범위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으로 확대되면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약 극복능력과 관광기반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철학에서 논의하는 자유개념의 주장과 맥락을 검토하여 기존 관광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개념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광 체계론적 관점에서 관광자유개념을 크게 관광자 측면과 관광 기반 측면으로 구분하여 관광형태 변화에 따른 확장된 관광자유 개념을 제시하였다. 관광자 측면은 의무로부터의 벗어나는 심리적 자유와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행동적 자유, 공동체적 자유로 구성된다. 관광기반 측면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자의 내적 자원을 고려하고, 관광친화환경으로 외적 자원을 갖추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관광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이끌어내면서 관광자를 둘러싼 환경조건에서 부자유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핵심용어 :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심리적 자유, 행동적 자유, 공동체적 자유

ABSTRACT : Freedom is an important concept in tourism, as it distinguishes tourism activities from other activities. Freedom is a prerequisite for tourism and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ourism motivation, tourism experience, and tourism outcomes. However, despite the change in the liberal paradigm and the diversified demand of tourists, freedom in tourism does not reflect this trend. Hitherto based on the classical philosophy of freedom, the concept of freedom in tourism only explains individual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73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1024730)

**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조교수. e-mail: chpark@dongseo.ac.kr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Dongseo University.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석사과정. e-mail: tkxkq2@gmail.com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 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choice opportunities.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first, the context and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freedom are reviewed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freedom in tourism literature. This paper proposes the expanded concept of freedom in the field of tourism, named tourism freedom. Tourism freedom consists of tourist-level psychological freedom, behavioral freedom, and communal freedom formed through tourism activities. This includes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freedom within the scope of tourism, beyond individual and subjective benefits. In addition, freedom at the tourism-based level can be understood as internal resources of tourists necessary to realize freedom in tourism, external resources as a tourism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resources that promote them smoothly. Consequently, it is emphasized that freedom in tourism i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aspects of tourist-level and tourism-based level, leading the issues related to tourism freedom to public rather than to individuals.

Key words : Positive freedom, Negative freedom, Psychological freedom, Behavioral freedom, Communitarian freedom

Ⅰ. 서 론

관광 활동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Caruana & Crane, 2011). 관광활동이 여가로서 다른 활동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특성이 바로 '자유'라는 개념이다(Ellis & Witt, 1984; Neulinger, 1974). 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Song & Kang, 2014), 자유의 추구가 중요한 관광 동기로 다루어진다(Crompton, 1979; Dann, 1981). Neal, Sirgy, and Uysal(1999)은 관광경험을 통제로부터의 자유와 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6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였고, Smith(1994)는 관광 활동을 물리적 시설과 환경, 서비스, 환대, 선택의 자유, 관여의 5개 요소로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관광에서 자유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관광에서 자유는 관광활동의 맥락에 따라 전체적인 경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in & Song, 2007; Li, Chung, & Kim, 2018; Neal, Sirgy, & Uysal, 1999). 관광을 통한 자유의 경험은 관광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관광지에서 자유롭다고 느낄수록 관광자는 긍정적인 관광지 이미지를 형성하고 몰입감, 만족 등을 경험하게 된다(Li *et al.*, 2018; Liu, Li, & Fu, 2016; Lunardo & Ponsignon, 2019). 또한 관광에서 자유는 관광 만족을 넘어 개인의 내적 성장과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며, 자아실현 등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한다(Blichfeldt & Nicolaisen, 2011; Gardiner & Kwek, 2017; Nawijn & Peeters, 2010; Small, 2008). 자유로운 관광경험은 삶의 영역에서 웰빙, 삶의 만족, 행복 등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난다(Jin & Song, 2007; Rahman & Veenhoven, 2018; Veenhoven, 2000; Verme, 2009).

관광에서 자유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와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 관광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유개념은 과거 냉전시대 '개인권리 보호'와 '국가체계 유지'의 구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 제약,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과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을 억압하는 외부의 시선과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개인이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장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구분된다. 하지만 냉전시대가 저물고 관광활동의 특성과 범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개념에 대한 비판과정과 발전적 논의가 생략된 채 과거 자유개념이 관광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Caruana & Crane, 2011).

이와 더불어 관광연구는 주체 철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만을 다루고 있다. 행위자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자유의 개념은 선택의 양에 국한된 것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선택의 폭이 넓음은 분명 자유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으며,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관광에서 선택에 제약이 없다고 느끼는 만큼 개인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편익을 얻기도 한다(Li, *et al.*, 2018; Liu, *et al.*, 2016; Nawijn & Peeters, 2010; Jin & Song, 2007). 하지만 선택의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관광이 항상 자유로운 상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유에도 실감의 낙차가 존재한다(Saito, 2011). 예를 들면, 전쟁, 폭력, 죽음 등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관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참여자의 범위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로까지 넓어짐에 따라 이들이 실감하는 자유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광의 주체 철학적 관점은 선택의 양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선택의 기회실현을 위한 환경과 능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관광활동은 사회와 고립되어 개인에게만 실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동반자, 관광 서비스 종사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 체계, 제도, 환경 등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외부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광활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자유개념은 개인의 내적 지각 차원에서 자유를 설명하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회피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자유와 타자의 조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Park, 2018).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타인 및 외부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자유의 본질 또한 외부 힘과의 맥락이 전제되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Lee, 2020), 단순히 선택의 기회만을 논하는 연구는 인간행동연구에 가까우며, 관광과 자유에 대한 고찰과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는 비판점을 지닌다(Harper, 1986; Liu, *et al.*,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광에서의 자유개념을 탐색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관광에서 다루는 자유개념의 바탕인 고전적 자유개념의 맥락을 고찰하고 기존 관광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유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기존 관광연구에서 자유개념이 사용되는 한계를 고전적 자유주의 중심 논의의 한계와 관광활동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관광에서 자유개념을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로 표현되는 관광자의 선택기회 뿐만 아니라 관광자를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 관광자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차원으로 연결 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장된 관광자유개념을 제시하고, 관광자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이론의 발전과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관광에서의 자유개념

1. 개념적 배경

자유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논

의 과정을 거쳐 그 내용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한 원칙이 존재해왔으며, 어떤 자유를 옹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이 노출된 상황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aito, 2011). 고대 그리스 시대 자유는 '노예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였으며, 자유를 특정 행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추구되어야 할 가치 그 자체, 최상의 덕이라고 생각했다(Cha & Lee, 2017). 중세 봉건사회에서 자유는 세금, 사법권 등으로부터 면제되는 배타적 측면의 개념이 통용되었다(Moon, 2004).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며 확대되어 자유의 개념은 17세기 계몽주의 운동과 산업혁명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상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이익 추구 태도를 장려하였으며, 삶의 주체이자 독립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의식과 신념 체계'를 확립하였다.

자유주의(liberalism)가 '개인적 자유의 확보'를 강조한 것은 그 시대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Cho, 2012). 홉스(Thomas Hobbes)와 로크(John Locke)는 국가의 권력과 타자의 폭력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Immanuel Kant), 몽테스키외(B. Montesquieu), 콩스탕(Benjamin Constant) 등도 국가의 간섭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국가와 타자에 대한 저항도 강해졌다. '국가와 사회', '타자', '시장'은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 권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가부장적 간섭을 물리치고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 시대적 노력의 결과가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냉전시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갈등은 보편적인 자유개념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유주의가 다수의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공화주의자들은 소수의 특권을 반대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였다. 이에 고전적 자유개념은 '개인권리 보호'와 '국가체계 유지'의 구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과 제약,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과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갖게 되었다(Kim, 2014). 이를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자유주의 이념에서 파생된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공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개념화하였다(Berlin, 1969).

소극적 자유는 정부의 억압과 간섭에 반대하면서 개인이 자유를 방어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소극적 자유는 '타자', '국가', '사회', '시장' 등을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배타적 사적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근대적 인간관"을 담고 있다. '자유'라는 개념을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를 보호해주고 개인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전적 자유개념의 사상적 근간을 확립하였다(No, 1991).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자유(刺楡)의 사전적 의미도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전통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체 중심적 전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남을 넘어 개인이 타고난 개체성의 추구와 실현을 강조하는 실천적 측면의 개념을 담고 있다(Lim, 2011). 이에 적극적 자유에서는 제약과 간섭에서 벗어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고 이를 실현할 때 자유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밀

(John Stuart Mill)은 자유의 개념에 개인 자아실현의 가치를 더 많이 결부했다.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고,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고유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im, 2011). 다시 말해 개인의 행위와 선택의 자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전적 자유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제약과 개인의 행위 및 선택의 폭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소극적 자유가 개인이 외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라면 적극적 자유는 '누가 자유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Kim, 2014). 적극적 자유는 이성적 인간의 자기결정을 지향하는 '자율성'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객체 구도의 주체철학이 바탕을 이룬다. 이에 적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지배가 아닌 개인이 자유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개인보다 우월한 주체가 개인의 사상을 지배한다면 결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자기실현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 관련 선행연구

관광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특정 순간에 개입되거나 발현되는 일시적 상태가 아닌 전체적인 경험을 구성한다(Li, *et al.*, 2018; Neal, Sirgy, & Uysal, 1999; Jin & Song, 2007). 관광을 떠나기 전 사람들은 관광을 통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로운 경험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거리를 떨쳐낸다(Bauman, 1993). 관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관광활동이 자유로웠다고 회상되기를 원한다. 관광의 목적과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동반자, 거리, 기간 등 구조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웰니스 관광, 휴가 관광, 다크 투어리즘, 봉사 관광, 나홀로 여행, 배낭여행 등 관광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쾌락을 즐기는 자유인 쾌락주의적 관광(hedonic tourism), 패키지 관광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유인 개별자유관광(independent tourism), 공동생산의 자유인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등 형태에 따라 자유개념이 달라진다(Caruana & Crane, 2011).

Mikkelsen and Cohen(2015)은 덴마크의 캐러밴 캠핑자를 대상으로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캐러밴 캠핑을 통해 느끼는 자유는 (1) 기존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자유, (2) 일상적 자유, (3) 젠더 역할이 사라지는 자유의 세 가지 맥락으로 정리되었다. Griffin, Bengry-Howell, Riley, Morey, and Szmigin(2018)은 음악축제 참가자들의 자유를 (1) 편견과 감시로부터의 자유, (2) 의무적 시간(9시-5시)으로부터의 자유, (3) 일시적으로 상품화된 자유, (4) 불필요한 규제로부터의 자유, (5) 대안적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자유의 5가지로 정리했다.

Liu, *et al.*(2016)는 관광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자유의 개념을 개인 동기로서의 자유, 레저활동에서의 지각된 자유, 선택의 자유로 구분하였다. Lee (2013)는 여행에서 여행자의 자유원칙을 3가지로 정리했다. 생각의 자유는 여행자가 생각하고 표현함에 있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호나 목적 추구의 자유는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결사의 자유는 관광지에서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단결할 수 있음을 말한다. 위 자유의 원칙은 모두 개인적인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이렇듯 관광에서 자유는 관광경험 전반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

로 나타나며, 개인이 놓인 상황과 여행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관광에서 자유로운 경험은 다양한 편익을 이끌어낸다. 관광에서 자유는 관광만족, 웰빙, 삶의 만족, 행복 등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난다(Jin & Song, 2007; Rahman & Veenhoven, 2018; Veenhoven, 2000; Verme, 2009), 여행 전반에 걸쳐 개인의 행동에 외부적 제약이 가해지지 않음은 여행 만족과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Nawijn and Peeters(2010)에 따르면 여행지 선택의 제약은 여행 행복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여행 거리, 여행 기간, 동행자, 여행 횟수 등 여행과 관련된 선행변수 중 선택 제약이 가장 행복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관광에서 자유는 내적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mall(2008)은 여성 86명의 어린 시절 관광 기억을 연구하였으며, 이들이 관광에서 자유와 독립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관광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경험이었음을 서술했다. 특히 여행을 통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뛰어넘어 개인에게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내러티브를 생산하기도 한다(Blichfeldt & Nicolaisen, 2011). Brown(2009)은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 집에서 떨어져 있음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결부되어 있는지 연구했으며, 오랜 시간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울 기회라고 하였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영국으로 온 유학생들은 '개방적, 이해심, 관대함'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외지 경험을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관광에서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광에서 자유를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 46편을 분석한 결과 다음 〈Table 1〉과 같이 구분되었다. 관광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Urry (1990)는 해방(liberation)과 허가(license)라고 분류했으며, Caruana and Crane (2011)은 해방을 벗어남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로 명명하고 허가를 선택의 자유(freedom to)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관광에서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의 개념인 벗어남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의 개념인 선택의 자유(freedom to)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Berlin, 1969; Caruana & Crane, 2011; Park, 2005; Lee, 2020). 이와 더불어 관광자의 자유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심리적 차원의 '지각된 자유(sense of freedom)'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ategory classification of freedom in travel

Category		Context		No. of studies	%*
Negative	Freedom from	norms of daily life	responsibilities	7	14.9
			social connections	6	12.8
			gender roles	3	6.4
		travel companion		3	6.4
Positive	Freedom to	make own travel decisions		15	34
Sense	perceived freedom			12	29.8
Total				46	100

*Rounded up to the first digit after the decimal point

첫째, 벗어남의 자유(freedom from)는 소극적 자유로 전체 46편 중 19편(40.5%)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관광을 통해 일상생활의 책임(responsibilities), 규범(social connections), 역할(gender roles) 등에서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관광의 특성과 연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Berdychevsky, Gibson, & Bell, 2013; Brown, 2009; Canavan, 2018; Everett & Parakoottathil, 2018; Fountain, Schänzel, Stewart, & Korner, 2015; Gardiner & Kwek, 2017; Kirillova, 2019; Small, 2008; Xu & Ye, 2016).

개인은 사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관광은 이러한 역할로부터 개인을 해방한다. Kim and Jamal (2007)은 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상을 규정하는 제약과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광의 빈도는 낮지만, 관광을 통해 외로움이 감소하거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Pagán, 2015; 2020). 특히 신체장애 때문에 생활이 제한된 경우에는 자신의 일상을 "고도로 구조화"되었다고 인식하며, 관광을 통해서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린다(Blichfeldt & Nicolaisen, 2011).

둘째,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는 전체 46편 중 15편(34%)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을 가지고 개인이 관광지, 교통수단, 체험활동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mith, 1994; Li, *et al.*, 2018). 자신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면 완전한 휴식이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Smith, 1994).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관광 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개인에게 많은 선택이 주어지는 관광을 선호하게 된다. 반대로 선택지가 부족하면 관광제약으로 이어져 관광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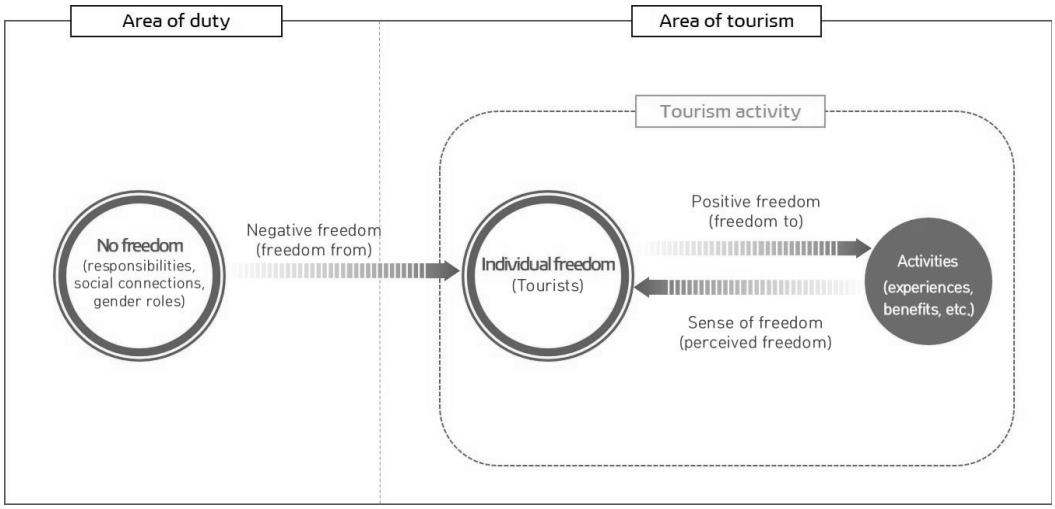
Xu and McGehee (2012)는 중국인 해외 쇼핑 관광객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통해 쇼핑 관광 경험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지불수단과 관련하여 불편하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뷰 참가자는 중국 은행에서 위안화와 달러화를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 갔지만, 결제 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불 수단이 현금으로 제한되어 쇼핑이 불편해졌고, 전체 관광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이처럼 관광 연구에서 자유는 관광지에서 선택의 자유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셋째, 지각된 자유(perceived freedom)는 전체 46편 중 12편(29.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개인의 행위와 선택으로 인해 개인이 자유를 얼마나 지각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지각된 자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으로 인해 어떤 편익이 발생하는가이다. 관광자가 지각하는 자유는 예산, 과거 관광 경험, 관광지에 대한 인식, 여행사나 패키지 관광에 관련된 요소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Liu, *et al.*, 2016). 그리고 여행자가 자유를 지각할수록 관광지 이미지,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Jin & Song, 2007).

이에 관련 연구들은 관광자들이 지각하는 선택의 자유를 측정하여 관광에서의 자유와 그 편익을 파악하고 있다(Lunardo & Ponsignon, 2019; Nawijn & Peeters, 2010). 또한 관광지에서 지각하는 자유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극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관광의 경우 참가자들은 강한 통제와 의무를 느끼지만, 여전히 봉사 여행을 일이 아니라 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pp, 2009). 이들에게 자원봉사여행은

다른 형태의 여행과 구별되는 독특한 경험이었고, 그 안에서의 의무(obligation)는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적극적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였다(Cho, 2018).

이를 종합하면, 기존 관광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Figure 1〉과 같이 일상의 영역과 관광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일상은 의무, 역할, 규범 등 부자유한 상황을 제공하지만 관광은 이로부터 벗어나 해방감과 일탈을 경험하는 소극적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관광자는 관광활동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되고 활동, 체험, 편익 등 관광행위를 통해 자유를 지각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관광자유개념은 개인적 차원의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지각된 자유로 구성된다.



〈Figure 1〉 The concept of freedom concept tourism applied by previous studies

Ⅲ. 관광에서 자유개념의 한계와 비판

1. 고전적 자유주의 중심 논의의 한계

관광에서 자유개념은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한다. 초기 자유주의는 외부로부터 간섭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홉스(Thomas Hobbes)의 '자연권'에 기초를 둔다. 홉스가 주장한 자유는 공동체적 유대와 의무가 결여되고 개인이 공동체보다 앞서는 반사회성 명제를 내포하고 있다(Hobhouse, 2006). 이후 헤겔의 관념론은 개인의 욕망이 타인과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법칙과 원리로 작동함을 주장하게 된다(Hegel, 1999). 이에 관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국가와 개인의 조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강조되며 외부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소극적 자유의 한계가 비판받게 된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전환되면서 자유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롤즈(Rawls)의 복지국가형 자유주의, 노직

(Nozick)의 자유지상주의, 왈처(Walzer)의 공동체주의와 같은 세부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Hwang & Kim, 1984).

하지만 관광에서의 자유개념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전적 자유주의 중심 논의에 그쳐있다. 고전적 자유의 개념은 주체와 객체 구도로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철학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다(Kim, 2014). 주체 중심 논의는 광범위한 자유개념을 '지각된 자유'라는 측정단위로 환원하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상태로 의미가 좁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자유 관련 연구를 관광자의 지각된 선택의 자유(perceived freedom of choice)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범위로 축소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Liu, *et al.*, 2016). 관광연구 속 자유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관한 연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각된 자유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Harper(1986)가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유가 특정 순간에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전반에 걸친 경험이라고 말한다. 즉, 자유는 선택의 측면에서 여가의 전제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합의(ongoing consent)"의 경험이다. 여기서 지속적 합의란 개인의 자아(self)와 행위(act)가 합치(agreement)한다는 것으로 경험 전반에 나타나는 개인 내적 상태와 행위의 일치를 방해하는 부자유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체는 세계와 타인을 대상화하고 지배하려는 능동적 주체로 이해된다. 능동적 주체의 자유에 대한 목표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있으며,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ideology) 또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자유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서 이것이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강압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고전적 자유개념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샤아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개념은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받아 왔다(Park, 2018). 따라서 개인 자유주의 사상의 배타적 자유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유가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이며, 개인 자유주의 관점에서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와 반영흐름은 개선되어야 한다.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는 전통적인 주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타자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자유를 지향하였다(Ki, 1998). 그는 인간의 자유가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형식을 확인하며, 타자와 개방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적인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였다(Park, 2018). 마찬가지로 아렌트(Hannah Arendt)도 우리가 자유의 상태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위와 언어 교류에 의해 자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렌트가 바라본 자유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고 향유될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자유라 할 수 있다(Chung, 2014).

무엇보다 고립된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연대성이 부각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Kim, 2014; Saito, 2011). Kim(2014)은 사회적 연대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삶의 질서와 이상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주관성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Cha and Lee(2017)는 적극적 자유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개인은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두 번째로 개인은 사물과 현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Saito(2011)도 '자유란 무엇인가'에서 개인 행위적 자유와 함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관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관광에서 자유는 개인화된 자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관점에서 관광을 둘러싼 관광자와 타자가 공존하는 관계적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은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적 맥락 및 타자와의 관계를 배제하고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Lee, 2013). 특히, 관광지가 아닌 일상생활 공간까지 관광활동으로 채워지면서 관광자와 타자의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Oh & Lee, 2003). 관광자의 행위가 거주민의 생활터전으로 확장되면서 쓰레기, 소음, 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정주권이 위협받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An & Kim, 2018; Kim & Woo, 2018; Liang & Bao, 2015). 또한 관광자의 시선과 지역주민 간 시선차이로 인해 내부자인 지역주민이 타자로 전환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Han, 2019). 이는 거주지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자와 거주민이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관광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타자를 지배하며, 타자의 주관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광자의 관광에 대한 자유욕구와 선택의 자유가 타자의 자유를 고려하지 못한 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Font and Hindley(2017)는 개인이 선택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리액턴스 이론(Reactance Theory)으로 설명한다. 리액턴스 이론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용성이 감소하여 희소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이 원하거나 소유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관광자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여행할 수 없게 될 때, 환경을 보전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행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이 위협받는 목적지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즉, 관광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욕구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주체 중심의 자유 이념이 미래의 관광자원을 소멸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광에서의 자유를 관광 행위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관광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없다.

2. 관광활동 특성 반영의 한계

관광활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별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UNWTO(2018)에 따르면 세계 관광객은 13억 명을 넘어섰으며, 관광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여행기회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개별관광객의 증가는 취향 세분화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성장시켰다. 하지만 관광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관광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공정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도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광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게 관광활동 특성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관광활동 참여자의 범위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또는 역량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자유로운 상태라고 주장한다. 자유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간섭이 부재한 자유로운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에 대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임에도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Carr, 2017).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관광활동을 하기 위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선

택의 자유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11)는 「세계질병부담조사」에서 세계인구의 15.3%(64억 인구 기준 9억 7천 8백만 명)가 중증 이상의 장애를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자료인 2017년 기준 OECD 32개 국가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도 14.9%로 WHO에서 추정한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내 장애인 출현율은 5.6%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 향후 세계 인구구조는 2050년까지 0-14세 인구는 20.2%로 점차 낮아지고 15-64세 인구는 63.7% 수준을 유지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7.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 16.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세계적인 출산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앞당길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Park(2018)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2018)에서 비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국내여행 지출액 분석 결과 장애인은 당일여행 평균 141,732원을 지출하고 비장애인은 72,464원을 지출하여 장애인이 50% 이상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약자 여행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관광지에 오래 머물며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광 수요와 욕구를 가지고 여가활동에 참여한다(Yau, McKercher, & Packer, 2004).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보다 더 많은 심신능력에 제약을 경험한다. 관광욕구가 높더라도 신체능력의 제약,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 등 자유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의 부재는 관광의 자유를 누릴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다(Blichfeldt & Nicolaisen, 2011).

둘째, 관광은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 자유는 시스템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관광활동은 사회와 고립된 채 개인에게만 실존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형성한다. 관광자의 관광욕구행위와 이들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부, 기업, 국제기구, 이익집단, NGO 등의 사회조직, 그리로 이를 둘러싼 거시적 측면의 정치, 경제, 법제도, 사회문화 등의 사회구조적 요소가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Leiper, 1990; McIntosh, Goeldner & Ritchie, 1995). 관광욕구행위와 사회조직 차원, 관광욕구행위와 산업시스템 차원, 관광욕구행위와 사회구조적 차원, 산업시스템과 사회구조적 차원 등 각 차원들이 관광자의 관광활동 과정 중 적절하게 개입한다.

관광자의 관광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관광전, 중, 후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8단계(정보탐색-접근교통 이용-목적지 도착-관광체험활동-현지교통 이용-식음서비스-숙박서비스-여행 평가)로 나누어진다(Clawson & Knetsch, 2013; Filep & Deery, 2010; Larsen, 2007. Pagán, Mahmassani, & Kraan, 2000). 1단계 정보탐색 과정은 여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목적지 접근성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에 자유로운 여행활동이 가능하도록 신뢰성 있는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 모바일 기기, 여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광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단계 접근 교통 이용 과정에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적절한 운송 수단이 필요하며, 운송 수단의 거점 인프라(공항,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복합환승센터 등)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은 관광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유도시설 및 안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승객의 승하차가 자유롭도록 내·외부의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관광자가 접근가능한 대중교통(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등)이 목적지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외 관광자 유형별 맞춤형 교통수단 및 특수교통수단(공유차량,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연결되어야 있어야 한다.

3단계 관광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관광지 내외부에 접근가능한 환경(관광약자 전용 주차장, 경사로, 접근로, 자동문, 내부 이동경로, 난간 손잡이, 넓은 보행공간 등)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관광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과 관광지 내 정보전달 안내체계와 통역가이드 등의 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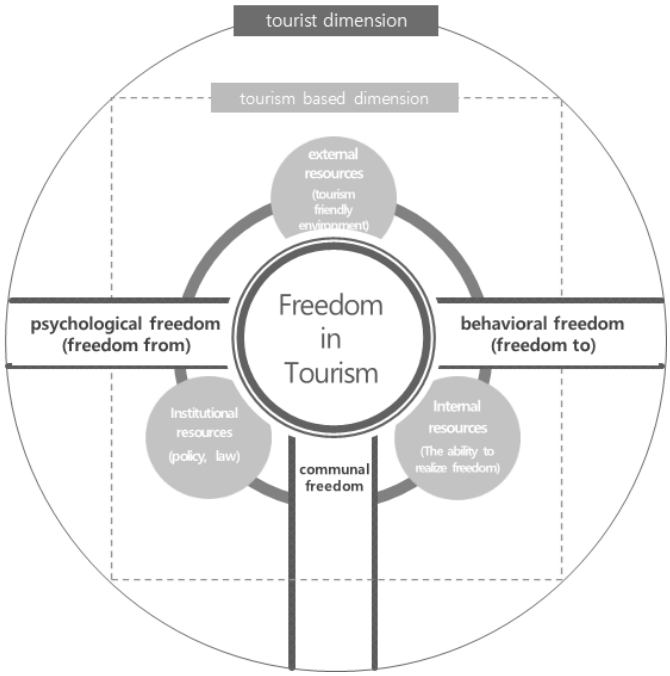
4단계 관광체험활동 과정에서는 관광자가 목적지에서 관람활동을 포함하여 특색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관광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활동과 이벤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관광목적지의 프로그램과 환경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면 다른 계층에게는 관광체험활동의 부자유를 발생시키게 된다. 5단계 현지교통 이용 과정에서는 관광자가 현지에서 이동을 위해 필요한 교통을 의미하며,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은 관광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유도시설 및 안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승객의 승하차가 자유롭도록 내·외부의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관광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캐리어의 이동과 불편을 완화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6단계 식음서비스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연계성을 높이고 이동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음시설은 관광약자 유형 중 알레르기 보유자나 채식주의자와 같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7단계 숙박서비스는 관광자의 체류를 촉진하거나 다음 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숙박시설의 내외부는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턱을 없애야 하며, 충분한 접근 폭을 갖추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8단계 여행평가 과정에서는 관광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재방문을 결정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관광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활동 속에서 활동에 관계된 각 차원의 구성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기능하며, 관광자의 자유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관광에서의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 한정함으로써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스템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관광지에서는 교통편의시스템 미비, 인프라 부족(Xu & McGehee, 2012), 인종차별(Livengood & Stodolska, 2004; Veréb, Nobre, & Farhangmehr, 2018)과 같은 부자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더라도 관광활동에서 여전히 어떠한 형태로든 부자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간섭의 부재로만 정의한다면 관광에서의 자유를 일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관광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관광을 통한 자유의 선행요소 혹은 경험의 일부분으로 자유를 획득한 것이지, 관광을 통한 자유는 해방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활동의 자유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Ⅳ. 관광에서 자유개념의 확장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활동의 복잡



〈Figure 2〉 Conceptual model of the freedom in tourism

성에 따라 관광에 적용된 자유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가와 개인 사이 중심 논의에서 타자를 포함한 상호주관적 관점으로 발전하였으며, 관광활동은 관광지를 벗어나 거주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자의 계층과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실현할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관광목적지의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적 상태에 따라 자유롭지 않은 부자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의 개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유의 부자유, 사회적 공공성의 저해가 지속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확장된 관광에서의 자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관광에서의 자유개념을 '관광자유(Freedom in Tourism)'라 지칭한다. 관광자유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관계적 관점의 공동체적 자유를 포함하며, 관광활동 중 부자유를 해소하기 위한 제약이 완화된 '자유로운 관광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관광자 차원에서 관광활동이 개인만의 활동이 아닌 개방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자유로운 관광을 위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스템적 측면의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관광자유는 〈Figure 2〉와 같이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 차원의 자유

관광자 차원의 자유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벗어남의 자유(freedom from)와 선택의 자유(freedom to)를 포함한다. 벗어남의 자유는 관광자의 심리적 자유(psychological freedom)를 의미한다. 첫째, 심리적 자유는 관광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의무, 역할 등 일상으로부터의

회피와 일탈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Caruana & Crane, 2011), 외부의 간섭과 방해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며, 관광은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다(Iso-Ahola, 1982). 관광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을 어딘가에 구속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랑자라고 인식하기도 한다(Xu & Ye, 2016). 관광지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난 관광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일상과 다른 경험과 의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심리적 자유경험은 사회적 역할이 강하게 부여되거나 일상생활의 제약이 클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된다.

Gardiner and Kwek(2017)은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관광활동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상대적으로 위계적인 사회인 중국에서 벗어나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의 사회적 시선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느꼈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평소 의사결정에 부모의 개입이 많았지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기간 관광을 통해 독립심과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심리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렇듯 관광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편안하게 일치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Lunardo & Ponsignon, 2019).

둘째, 선택의 자유는 관광자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적 자유(behavioral freedom)를 의미한다. 행동적 자유는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기초로 관광자가 얼마나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관광행위에 필요한 목적지 활동, 교통수단, 체험활동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Li *et al.*, 2018; Smith, 1994). 관광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관광으로 인한 편익이 높아진다. Wang(2000)은 일상적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으며, 일상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관광행위를 통해 개인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활동이 행복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Kim & Jamal, 2007; Shim & Kim, 2017; Wang, 2000; Yu, Li, & Xiao, 2019). 이에 관광자는 많은 선택이 주어지는 개별관광을 선호하게 된다. 관광행위에 대한 제약은 개별자유여행과 비교하여 패키지 투어가 갖는 약점이 된다. 개별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에 대해 각각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개별자유여행은 '자유'와 여유' 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패키지여행은 ' 빡빡한 일정', 추가옵션 강매' 등 행위에 대한 제약을 연상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답변되었다(Lee, 2019).

셋째, 지역주민, 종사자, 환경 등과 관광자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자유(communal freedom)로 구성된다. 최근 관광활동이 일상화되고 관광지가 아닌 지역주민의 일상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자유의 개념이 개인적 측면에서 나아가 관광시스템 측면에서 관광자, 이해관계자, 환경 등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활동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며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 Wall, Wang & Jin, 2019). 관광활동의 주요 이해 관계자로서 목적지 커뮤니티와 그들의 생계는 관광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광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 간 공정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소통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Lee, Song & Yoon, 2012). 특히 관광활동에 따른 지역주민, 관광산업 종사자, 자연환경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Hwang, 2013). 관광활동은 관광산업

종사자, 지역주민, 환경자원 등 타자와 공유하는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관광자만의 것이 아니다(Mustonen, 2006). 또한 타자의 자유는 관광활동에 필요한 자원에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이렇듯 관광자유는 관광자의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2. 관광기반 차원의 자유

관광기반 차원의 자유는 관광자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Saito(2011)는 '자유란 무엇인가'에서 자유의 자원적 조건(내적 자원/외적 자원/제도적 자원)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내적 자원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심신 능력을 의미하며, 외적 자원은 내적 자원 및 욕구를 실현하거나 보완해주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외적 자원의 활용해 있어 사회구조적으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제도적 자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장애로 인한 내적 자원이 결여된 상태이며,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장애보조기구와 같은 외적 자원과 장애인 활동관련 법·제도로 이루어진 제도적 자원이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광자유는 관광자 특성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광기반 차원을 포함한다. 이는 관광의 전체적인 경험을 좌우하는 자유의 특성과 관광활동의 단계별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 관광에서의 자유는 자원의 결합(내적 자원, 외적 자원, 제도적 자원)으로 인해 자유로운 관광활동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고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관광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게 된다.

첫째, 다양해진 관광자 유형에 따른 내적 자원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통적 자유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선택의 기회로써 자유는 양적인 개념으로 실제 행위자가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는 능력이 평등하지 않다는 데 기초하며, 자유를 의미하는 선택지의 양(量)보다 선택이 가능하고 인간 행위로서 실천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개인의 가치 및 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Saito, 2011). 자유에 관한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자유를 "선택의 가능성(possibility to choose)"으로 정의하며, 이를 다시 "선택지의 존재"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한다. Cho(2018)는 환자와 죄수의 비유를 통해 자유를 선택할 힘과 누릴 힘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를 누릴 힘이 없어서이고, 죄수가 감옥을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광에서의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관광자의 내적 자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관광약자란 사회적 약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관광약자의 개념은 장애유형이 아닌 물리적·심리적 장벽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관광약자 관광객의 유형은 관광약자의 유형은 돕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 목발이나 지팡이, 유모차(wheeled stroller)를 사용하는 사람, 팔이나 손의 사용이 제한적인 사람, 저시력 또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기존 장애유형 분류에서 확장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과 같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관광약자의 범위를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는다. 매우 작거나 매우 큰 사람,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순환기 질환(circulatory diseases)과 같이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지닌 사람, 다리가 부러진 것과 같이 일시적인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크고 무거운 장비 또는 짐을 가진 사람 등 기존 장애 유형에서 사용자의 신체 크기, 물리적 공간, 심리 상태,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선택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 내적 자원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Buhalis, Darcy, & Ambrose, 2012). 여행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도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 때문에 일상이 제한된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가는 한 편(Blichfeldt & Nicolasisen, 2011),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의 돌보미로서 함께 여행을 갈 때는 자유가 제한됨을 느낀다(Gladwell & Bedini, 2004).

둘째, 관광자의 자유 실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자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 그 사람의 '상태와 행동'의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역량에는 심신능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환경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Saito(2011)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을 이용해야만 향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외적 자원의 충족은 자유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관광자의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문화적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자원이 필요하다. Korea Tourism Organization(2018)에 따르면 2017년 무슬림 방문객 수가 87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12년 전체 외래객 대비 무슬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슬림 관광객이 방한 여행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무슬림 친화적 여행환경(기도실, 기도용품, 할랄 음식 등)이 조성되어 있느냐이다(Cetin, & Dincer, 2016; Hakeem, & Lee, 2018; Kim, Kwon, & Choi, 2017; Liu, Li, Yen, & Sher, 2018). 마찬가지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9)의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의 경우, 언어소통, 관광안내서비스, 길 찾기 등에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관광이 활발해짐에 따라 타 국가를 방문할 때 국가별 수용태세에 따라 관광자가 부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셋째,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의 충족에 필요한 관련 산업의 출현과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기 위한 제도적 자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관광의 주체로, 자유의 역량에 따라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원의 조화는 관광 목적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처럼 관광에서의 자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된다. 공공의 문제가 결합된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유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활동은 다차원적이면서 복잡한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관광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건축, 도시, 복지, 문화예술 등 타 부서와의 정책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공공차원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민간영역에서도 외적 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짐에도 관광 환경과 사회적 접근성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자가 교통이나 건축, 통신과 같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데 장벽이 생길 경우,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법제도 및 정책과 같은 제도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Nawijn & Peeters, 2010; Saha, Su & Campbell, 2017). 국내에서는 2014년 「관광진흥법」과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광약자 관련 법령 신설 및 개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며, 2017년 7월 「열린 관광지 100개소 조성」이라는 정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의 범위를 신체적 장애, 환경적 장애, 사회적 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장애 요소를 제거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규제완화와 관리편익 측면에서 제도적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일정기간 무비자 체류 제도의 도입,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 다국적의 외래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와 언어의 개방성 확대, 관광자 이동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빌리티(mobility) 규제완화, 관광객이 밀집되는 주민 정주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 이러한 현상을 관광지 차원이 아닌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적 자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이용하고 즐기는데 부자유를 겪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인간이 삶에서 겪는 자유의 억압과 부자유의 상황은 자유라는 개념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유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하였다. 인간은 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을 갈망하면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유가 주는 편익과 삶의 만족은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특히 관광경험을 통해 일상의 책임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선택을 자유를 부여받고,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거리를 떨쳐내 왔다(Bauman, 1993; Gardiner & Kwek, 2017; Nawijn & Peeters, 2010). 이처럼 관광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은 관광 만족과 관광자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관광과 자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Jin & Song, 2007; Lin & Fu, 2017).

이 연구에서는 관광에서 자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광자유개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자유의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관광시스템적 특성을 반영한 관광에서의 자유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관광에서 다루는 자유개념의 기초가 되는 고전적 자유 개념을 살펴보았다. 외부로터의 개입을 배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자유주의 측면의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권리 신장을 주장한 공화주의 측면의 적극적 자유가 큰 축을 이루었다. 두 개념을 바탕으로 관광연구의 자유개념은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벗어남의 자유(freedom from)와 적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행위(freedom to)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 또한 개인이 관광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각된 선택의 자유라는 측정 단위를 활용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관광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유개념의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냉전시대 그것과 달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개인적 자유를 강조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지나친 개인주의는 자유의 조건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가속화시킨다고 비판받아왔다(Moon, 2004). 이에 자유주

의 패러다임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평등, 정의, 분배를 추구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 전환되면서 자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전적 자유개념에 기초한 관광에서의 자유는 관광을 둘러싼 상호 간의 자유를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편재를 낳았다. 관광연구에서 개인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관광의 자유는 타자의 대상화와 같은 상호의존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자유라는 개념하에 자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은 누구에게 어떤 자유를 주었고 누구에게 어떤 자유를 박탈했는가? 우리 사회는 어떤 자유를 박탈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자유를 인지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유한 자원과 능력,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를 포괄하여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관광에서 자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과거의 자유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좁은 의미만을 담고 있었다.

또한 관광활동은 다차원적이면서도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관광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시스템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관광 일상화로 인해 관광자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관광욕구가 높더라도 신체능력의 제약,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 등 자유 실현의 부자유는 관광의 자유를 누릴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다(Blichfeldt & Nicolaisen, 2011). 선택의 기회는 관광을 떠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관광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자유를 개인의 선택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외부 개입을 통해 관광지의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적 부자유가 발생할만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더 자유로운 관광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4장에서는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광자유(tourism freedom) 개념을 제시하였다. 관광자유개념은 관광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광활동에서 나타나는 관광시스템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상황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관광자유는 관광자 개인만의 가치가 아닌 관광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기 위해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넘어 관계적 측면의 확장된 논의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자유는 관광자 차원의 자유와 관광기반 차원의 자유로 구분하였다.

관광자 차원의 자유는 개인의 심리적 자유(psychological freedom)와 행동적 자유(behavioral freedom), 관광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적 자유(communal freedom)로 구성된다. 이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편익을 넘어 관광이라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적 자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개인적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유를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관광기반 차원의 자유는 관광자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인 내적 자원,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친화환경으로 외적 자원, 자원 활용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장치인 제도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관광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내·외적 자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외적 자원의 불충족과 제도적 자원의 부재는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학 분야의 기초 개념인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관광에서 자유는 관광활동이 다른 활동과 다름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개념이다. 하지만 기존 관광학 분야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고전적 자유에 기초한 개

인적 차원의 선택 기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광의 전제이자, 동기, 경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고찰과 더불어 관광분야에서 확장된 관광자유개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관광자유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관점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외부 개입이 필요한 공공의 문제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관광활동이 일상이 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 관광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자가 관광활동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호스트로서 지역주민, 종사자가 자유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관계의 공정함과 자유의 상호주관성을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와 방향성일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자유 개념모형이 관광에서 자유를 평가하는 기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광에서의 자유가 지각된 선택의 자유라는 측정 단위로 환원되면서 관광자의 선택과 의사결정 측면에 편중되는 개인의 선택 행위로만 논의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Li, *et al.*, 2018; Liu, *et al.*, 2016). 하지만 관광자가 관광의 전 과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한 측정지표의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자유개념의 관광자 차원과 관광기반 차원의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광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정책들을 관광복지의 관점이 아닌 관광자유의 관점에서 내적·외적·제도적 기반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관광자에게 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광목적지의 접근성 개선, 관광활동 전반의 편의시설 개선, 다국적 방문객을 위한 사회문화적 개방성 등을 갖추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광자의 전체적인 관광경험의 자유로움을 확대하기 위해 출발 단계에서부터 돌아오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광 단계별 연결성'을 갖추기를 제안한다.

최근 관광현상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담론은 주체 중심의 간섭으로부터 부재 또는 자기실현적 측면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관광자유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개인 자유주의 관점에서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와 반영흐름은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립된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연대성이 부각되는 공동체적 자유개념이 확산되어야 한다(Kim, 2014; Saito, 2011).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자유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관광에서 확장된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Park, Chang-Hwan: Conceptualization, Visualization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Kim, Soo-Yong: Literature Review and Writing(Reviewing and Editing). Lee, Hoon(Corresponding Author): Supervision and Validation.

참고문헌

An, J. H. & Kim, N. J. (2018). An Exploration of the Causal Loop Structure and Policy Leverage in the Tourism Gentrification Phenomenon: With a Focus on Bukchon A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2*(1), 91-116. https://doi.org/10.17086/jts.2018.42.1.91.116

Bauman, Z. (1993). *Postmodern Ethics*, Oxford, UK; Cambridge, Mass.: Blackwell.

Berdychevsky, L., Gibson, H. J., & Bell, H. L. (2013). Girlfriend Getaways and Women's Well-Be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5*(5), 602-623. https://doi.org/10.18666/jlr-2013-v45-i5-4365

Berlin, I. (1969). *Two concepts of liberty*. Berlin, i, *118*(1969), 172.

Blichfeldt, B. S., & Nicolaisen, J. (2011). Disabled travel: not easy, but doable. *Current Issues in Tourism, 14*(1), 79-102. https://doi.org/10.1080/13683500903370159

Brown, L. (2009).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HE INTERNATIONAL SOJOURN: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3), 502-521. https://doi.org/10.1016/j.annals.2009.03.002

Buhalis, D., Darcy, S., & Ambrose, I. (Eds.). (2012). B*est practice in accessible tourism: Inclusion, disability, ageing population and tourism*. Channel View Publications.

Canavan, B. (2018). The complex cohort: a netnographic review of generation Y backpackers. *Leisure Studies*, *37*(2), 184-196. https://doi.org/10.1080/02614367.2017.1347699

Carr, N. (2017). Re-thinking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freedom. *Annals of Leisure Research*, *20*(2), 137-151. https://doi.org/10.1080/11745398.2016.1206723

Caruana, R., & Crane, A. (2011). Getting away from it all: Exploring Freedom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1495-1515. https://doi.org/10.2139/ssrn.1663933

Cetin, G., & Dincer, M. Z. (2016). Muslim friendly tourism (MFT): A discussion. *Journal of Tourismology*, *2*(1), 65-67. https://doi.org/10.26650/jot.2016.2.1.0005

Cha, J. S. & Lee, J. H. (2017). Liberty and Liberal Education from Aristotle's Perspective.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56*(3), 303-323. https://doi.org/10.46346/tjhs.108..11

Cho, G. H. (2012).「사회관계론의 동·서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모색 II」.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Cho, S. R. (2018). Locke on Liberty. *World History and Culture*, *48*, 1-27.

Chung, M. L. (2014). Die Politische Handlung und die Freiheit.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76*, 611-628.

Clawson, M., & Knetsch, J. L. (2013).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New York: RFF Press.

Crompton, J. L. (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https://doi.org/10.1016/0160-7383(79)90004-5

Dann, G. M. (1981). Tourist motivation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8*(2), 187-219. https://doi.org/10.1016/0160-7383(81)90082-7

Ellis, G., &Witt, P. A. (1984). The measurement of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2), 110-123. https://doi.org/10.1080/00222216.1984.11969579

Everett, S., & Parakoottathil, D. J. (2018). Transformation, meaning-making and identity creation through folklore tourism: the case of the Robin Hood Festival. *Journal of Heritage Tourism*, *13*(1), 30-45. https://doi.org/10.1080/1743873x.20

16.1251443

Filep, S., & Deery, M. (2010). Towards a picture of tourists' happiness. *Tourism Analysis*, *15*(4), 399-410. https://doi.org/10.3727/108354210x12864727453061

Font, X., & Hindley, A. (2017). Understanding tourists' reactance to the threat of a loss of freedom to travel due to climate change: a new alternative approach to encouraging nuanced behavioural chang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5*(1), 26-42. https://doi.org/10.1080/09669582.2016.1165235

Fountain, J., Schanzel, H., Stewart, E., & Korner, N. (2015). Family experiences of visitor attractions in New Zealand: differing opportunities for 'family time' and 'own time'. *Annals of Leisure Research*, *18*(3), 342-358. https://doi.org/10.1080/11745398.2015.1047389

Gardiner, S., & Kwek, A. (2017). Chinese Participation in Adventure Tourism: A Study of Generation Y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4), 496-506. https://doi.org/10.1177/0047287516646221

Gladwell, N. J., & Bedini, L. A. (2004). In search of lost leisure: The impact of caregiving on leisure travel. *Tourism Management*, *25*(6), 685-693. https://doi.org/10.1016/j.tourman.2003.09.003

Griffin, C., Bengry-Howell, A., Riley, S., Morey, Y., & Szmigin, I. (2018). 'We achieve the impossible': Discourses of freedom and escape at music festivals and free partie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8*(4), 477-496. https://doi.org/10.1177/1469540516684187

Hakeem, A., & Lee, H. (2018). Understanding Muslim visitors' attitudes towards Korean street food.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8*(3), 215-235. https://doi.org/10.1080/15980634.2018.1526455

Han, J. H.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f Resident Perceived Place and Placelessness in Touristifica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1*(5), 69-88. https://doi.org/10.31336/jtlr.2019.5.31.5.69

Harper, W. (1986). Freedom in the experience of leisure. *Leisure Sciences*, *8*(2), 115-130.

Hegel, G. W. F. (1999). Hegel: Political Writing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80/01490408609513064

Hobhouse, L. T. (2006). 『자유주의의 본질』, *Liberalism* (김성균). 서울: 현대미학사. (Originally published in 1964)

Hwang, H. J. (2013). Analysing the meaning of Tourism fairnes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8*(5), 1-22.

Hwang, K. S., & Kim, S. B. (1984). J. Rawls' Liberal Egalitarianism.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22*, 41-82.

Iso-Ahola, S. E. (1982).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2), 256-262. https://doi.org/10.1016/0160-7383(82)90049-4

Jin, C. Y. & Song, W. G. (2007). The Effect of Tourist Experience on Tourist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 Case of Non-institutionalized Domestic Tour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1*(4), 23-41.

Ki, J. H. (1998). The Meaning of Freedom in Schiller's Aesthetics. *The Arts and Modern Culture Research Journal*, *3*, 5-17.

Kim, H., & Jamal, T. (2007). Touristic ques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181-201. https://doi.org/10.1016/j.annals.2006.07.009

Kim, J. W., Kwon, J. W., & Choi, J. L. (2017). The Study of the effect of Muslim tourists destination choice attributes on Korea visit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9*(8), 155-174.

Kim, W. S. (2014). Reconstruction of the Modern Concept of Freedom: Exploring an Ideal for Multidimensional Social Critique. *Social Philosophy*, *27*, 81-108

Kim, Y. G. & Woo, E. J. (2018). Examining the impacts of Touristification on Quality of Life (QO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0*(7), 161-178. https://doi.org/10.1080/02642069.2020.1722652

Kirillova, K. (2019). Existentialism and tourism: new research avenu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Cities*, *5*(3), 429-442. https://doi.org/10.1108/ijtc-02-2019-0033

Korea Tourism Organization(2018). 「2018년 방한 무슬림 관광실태조사」. Wonju: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2018).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Seoul: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Larsen, S. (2007). Aspects of a psychology of the tourist exper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7*(1), 7-18.

Lee, B. M. (2020). Leisure and the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2*(1), 463-486. https://doi.org/10.31336/jtlr.2020.1.32.1.463

Lee, W. K. (2013). An In-depth Study on the Freedom Concept of Travel.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7*(5), 269-288.

Lee, Y. J., Song, Y. M., & Yoon, J. H. (2012). Discussion on the Fairness in Tourism Phenomenon: Focused on the Tourism System.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4), 35-57.

Lee, Y. S. (2019). A Comparative Study of Travel Experiences: Individualized Free Travel and Package Travel.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52*(2), 247-322.

Leiper, N. (1990). Partial industrialization of tourism system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600-605. https://doi.org/10.1016/0160-7383(90)90030-u

Lepp, A. (2009). Leisure and Obligation: An Investigation of Volunteer Tourists' Experience at Kenya's Taita Discovery Cente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2), 253-260. https://doi.org/10.1080/00222216.2009.11950168

Li, J., Chung, Y., & Kim, W. G. (2018). Freedom of choice as a critical success factor in destination marketing: Empirical evidence from a far-east gambling city.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8*(3), 321-332. https://doi.org/10.1177/1467358416663819

Liang, Z. X., & Bao, J. G. (2015). Tourism gentrification in Shenzhen, China: causes and socio-spatial consequences. *Tourism Geographies*, *17*(3), 461-481. https://doi.org/10.1080/14616688.2014.1000954

Lim, J. A. (2011). On the Concept of Mill's Democratic Liberty - Beyond Berlin's Two Concepts of Liberty-.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0*(59), 101-115. https://doi.org/10.15841/kspew..59.

201103.101

Lin, C. F., & Fu, C. S. (2017). Changes in tourist personal values: impact of experiencing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2), 173-186. https://doi.org/10.1080/10941665.2016.1208670

Liu, X. R., Li, J. J., & Fu, Y. D. (2016). Antecedents of tourists' behavioral intentions: The role and influence of tourists' perceived freedom of choice, destination image, and satisfaction. *Tourism Analysis*, *21*(6), 577-588. https://doi.org/10.3727/108354216x14713487283048

Liu, Y. C., Li, I. J., Yen, S. Y., & Sher, P. J. (2018). What Makes Muslim Friendly Tourism? An Empirical Study on Destination Image, Tourist Attitude and Travel Intention. *Advances in Management and Applied Economics*, *8*(5), 27-43.

Livengood, J. S., & Stodolska, M. (2004).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nd constraints negotiation on leisure behavior of American Muslims in the post-September 11 Americ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2), 183-208. https://doi.org/10.1080/00222216.2004.11950019

Lunardo, R., & Ponsignon, F. (2019). Achieving Immersion in the Tourism Experience: The Role of Autonomy, Temporal Dissociation, and Reacta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9*(7), 1151-1167. https://doi.org/10.1177/0047287519878509

McIntosh, R. W., Goeldner, C. R., & Ritchie, J. B. (1995).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No. Ed. 7)*. John Wiley and Sons.

Mikkelsen, M. V., & Cohen, S. A. (2015). Freedom in mundane mobilities: caravanning in Denmark. *Tourism Geographies*, *17*(5), 663-681. https://doi.org/10.1080/14616688.2015.108452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9). 「2019 외래관광객조사」. Wonju: Korea Tourism Organization.

Moon, J. (2004). The Conception of Liberty in Liberalist Context - John Locke and the Lockean Tradition.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10*(1), 171-192.

Mustonen, P. (2006). Volunteer tourism: Postmodern pilgrimage?.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3*(3), 160-177. https://doi.org/10.1080/14766820608668493

Nawijn, J., & Peeters, P. M. (2010). Travelling 'green': is tourists' happiness at stake?. *Current Issues in Tourism*, *13*(4), 381-392. https://doi.org/10.1080/13683500903215016

Neal, J. D., Sirgy, M. J., & Uysal, M. (1999). The role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travel/tourism services and experience in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and overall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153-163. https://doi.org/10.1016/s0148-2963(97)00197-5

Neul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I, *11*, 295-306.

No, M. S. (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Seoul: Minumsa.

Oh, J. J. & Lee, H. S. (2003).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Postmoder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7*(1), 101-116.

Pagán, R. (2015). The contribution of holiday trips to life satisfaction: the ca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Issues in Tourism*, *18*(6), 524-538. https://doi.org/10.1080/13683500.2013.860086

_____. (2020). How important are holiday trips in preventing loneliness? Evidence for people without and with self-reported moderate and severe disabilities. *Current Issues in Tourism*, *23*(11), 1394-1406. https://doi.org/10.1080/13683500.2019.1619675

Pagán, Y. L. L., Mahmassani, H. S., & Kraan, M. (2000). *Trip planning behavior of tourists: San Antonio case study* (No. SWUTC/00/472840-00073-1). Southwest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Texas A & M University.

Park, I. C. (2005). Die Idee der phanomenologischen Freiheit: Zum Begriff der Freiheit bei Arendt und Levinas.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71*, 219-243.

Park, I. C. (201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chiller's Conception of Freedom -On the Relation between Otherness and Autonomy-.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136*, 53-82. https://doi.org/10.18694/kjp.2018.08.136.53

Park, K. O. (2018).「무장애관광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부산의 방향」.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Rahman, A. A., & Veenhoven, R. (2018). Freedom and happiness in nations: A research synthesi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2), 435-456. https://doi.org/10.1007/s11482-017-9543-6

Saha, S., Su, J. J., & Campbell, N. (2017). Does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matter for inbound tourism? A cross-national panel data estim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2), 221-234. https://doi.org/10.1177/0047287515627028

Saito. (2011).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서울: 한울. 이혜진 역.

Shim, C. S. & Kim, C. A. (2017). The Effect of the Pursui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by Tourists on Their Preference for Independent Travel and Solo Travel: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1*(6), 151-166. https://doi.org/10.17086/jts.2017.41.6.151.166

Small, J. (2008). The absence of childhood in tourism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3), 772-789. https://doi.org/10.1016/j.annals.2008.06.002

Smith, S. L. (1994). The tourism produc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82-595.

Song, Y. M. & Kang, J. S. (2014). A Study on the Nomadism of Backpacking.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8*(2), 151-169.

Statistics Korea. (2017). 장애인 통계.

Statistics Korea. (2019). 세계 인구구조 전망.

Su, M. M., Wall, G., Wang, Y., & Jin, M. (2019). Livelihood sustainability in a rural tourism destination - Hetu Town, Anhui Province, China. *Tourism Management*, *71*, 272-281. https://doi.org/10.1016/j.tourman.2018.10.019

UNWTO (2018). Tourism Highlight 2018 Edition.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ondon; 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Veenhoven, R. (2000).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257-288.

Veréb, V. N., Nobre, H., & Farhangmehr, M. (2018). The fear of terrorism and shift in cosmopolitan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Cities*, *4*(4), 452-483. https://doi.org/10.1108/ijtc-03-

2018-0024

Verme, P. (2009). Happiness, freedom and contro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2), 146-161. https://doi.org/10.2139/ssrn.1499652

Wang, N. (2000). *Tourism and modernity: A sociological analysis*. Oxford: Pergam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y*.

Xu, H. G., & Ye, T. (2016). Tourist Experience in Lijiang-The Capital of Yanyu. *Journal of China Tourism Research*, *12*(1), 108-125. https://doi.org/10.1080/19388160.2016.1168758

Xu, Y., & McGehee, N. G. (2012). Shopping behavio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the United States: Letting the shoppers do the talking. *Tourism Management*, *33*(2), 427-430. https://doi.org/10.1016/j.tourman.2011.05.003

Yau, M. K. S., McKercher, B., & Packer, T. L. (2004). Traveling with a disability: More than an access issu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946-960.

Yu, J., Li, H., & Xiao, H. (2019). Are authentic tourists happier?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st perceived cultural distance, existential authenticity,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1), 144-154. https://doi.org/10.1002/jtr.2324

Received September 02, 2020
Revised January 14, 2021
Accepted February 10, 2021